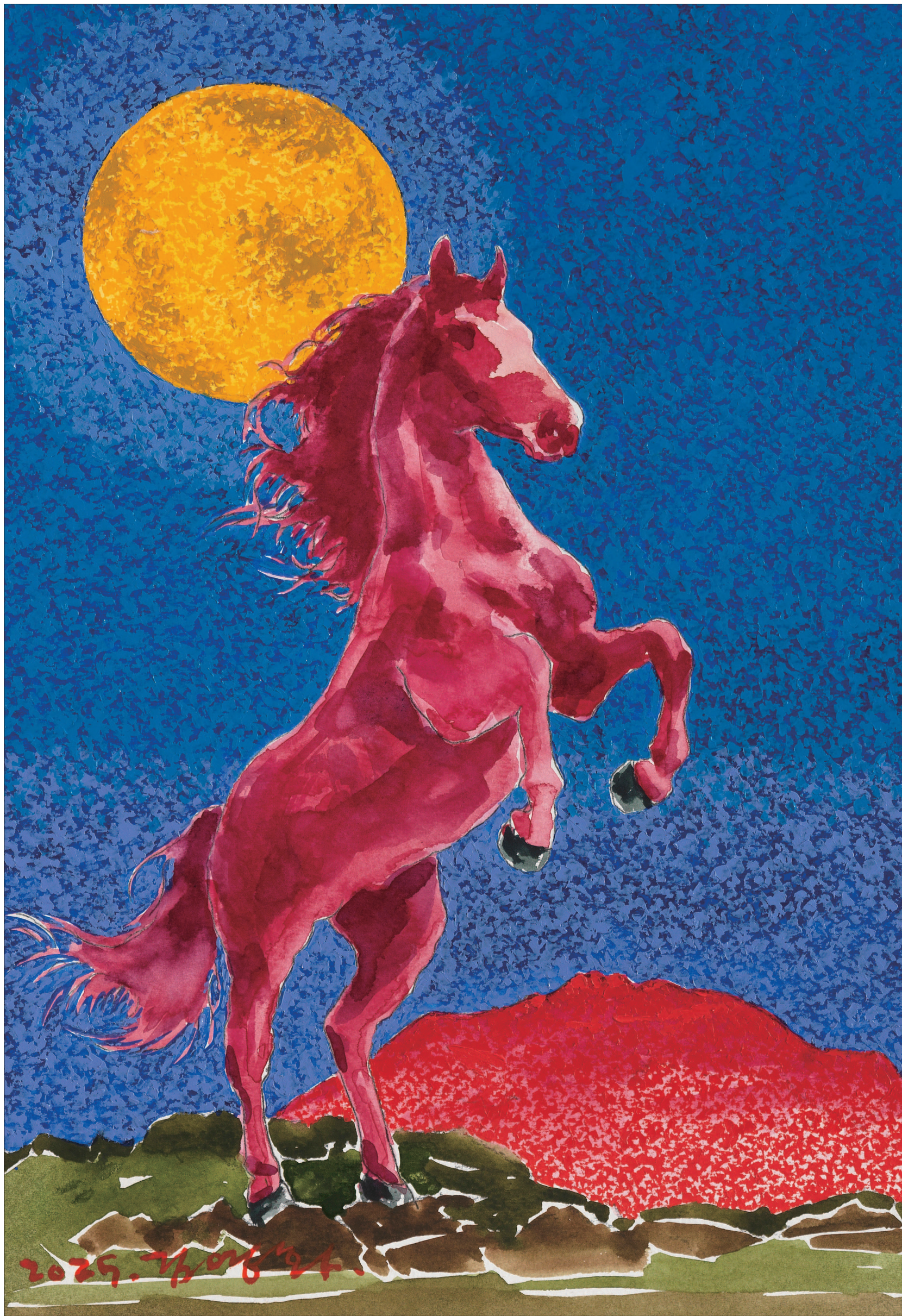


# 아리고 맵고 순하고 여린 것들 불평없이 안다



김영화 작 '적토마의 해'

## 붉은 말띠해 신문지의 쓸모

조성국

더께 낀 유리창 세정 하듯 닦을 거다  
 말 많은 구설수 죄다 내려놓고 차곡차곡 접혀 쟁여졌다가  
 이따금  
 삼겹살 굽는 거실 바닥에 튀기는 기름기 받아줄 거다  
 내가 구독한 신문은  
 얇은 불에 천천히 끓인 밀가루 풀 바른 도배의 작은 방  
 묵은 때와 낙서를 도려낸 초벌 벽지 돼주고 또,  
 넓게 펼쳐 깔린 채 마늘 양파 넣어 말린 배란다  
 고구마 감자의 몸  
 시들지 않게 감싸 주고 일테면  
 아리고 맵고 순하고 여린 것들을 불평 한번 없이 안아줄  
 거다, 또  
 그늘에 자리 잡고 앉아  
 쌀벌레 바구미 슬은 입쌀 숨아내고  
 떼어낸 마른 멸치 통이나 알 굵은 마늘 껍질을 죄다 받아  
 줄 거다  
 또, 구겨져 뭉쳐서는 빗물 젖은 신발 속의  
 고린내도 냉큼 잡아주고  
 밖에 나가 깨지기 쉬운 이삿짐 살림살이 보살펴 돌보듯  
 잠든 노숙의 얼굴을 가만 덮어줄 거다 그리고는  
 버려진 듯 찢어져서 마침내 저를 태워 누군가의 인 손  
 쪼어주는 불쏘시개 돼준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거다  
 내가 조건에 구독하는  
 병오년 붉은 말띠해의 광남일보는

### 시·조성국



△광주 출생 △1990년 '창작과 비평' 봄호로 등단 △2015년 '문학동네' 여름호에 동시 발표하며 작품활동 시작 △시집 '슬그머니'·'동근 진동'·'나만 멀쩡해서 미안해'·'귀 기울여 들어 줘서 고맙다'·'애나' △동시집 '구멍 집'·'들리고 싶은 비밀' △평전 '돌아오지 않는 열사, 청년 이철규'

### 그림·김영화



△광주 출생 △초대 개인전 32회 △개인전 18회 △한·러 현대미술전 등 국제초대전 17회 △동아시아의 우리가족전 및 99국제 섬 미술전 초대 등 각종 130여회 △그룹 단체전 250여회 △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△현 광주전업미술가협회 회장 △현 평화예술재단 광주·전남 지회장